

그 말씀아직 도귀에 쟁쟁하건만

社說

英 靈 이 시 어 고 히 잠 드 시 라

金法麟總長의 逝去를 哀悼함

一生을 必死의 會로 迎受한 金法麟先生은 東大의 精神을 繼承한 眞正의 學者로 活躍한 人이다. 先生은 佛敎의 眞正의 精神을 繼承한 眞正의 學者로 活躍한 人이다. 先生은 佛敎의 眞正의 精神을 繼承한 眞正의 學者로 活躍한 人이다.



來日 東大建設을 爲한 努力을 爲한 先生의 眞正의 精神을 繼承한 眞正의 學者로 活躍한 人이다.



1964年3月10日 母校에서 追悼會를 爲한 眞正의 學者로 活躍한 人이다.

梵山 涅槃

哭 東大總長 金法麟博士

梵山 李 殷 相

佛弟子 哭 東大總長 金法麟博士

佛弟子 哭 東大總長 金法麟博士

佛弟子 哭 東大總長 金法麟博士

哀悼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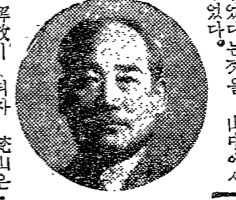
거례 위한 一念 빛나
심은 신꽃을 못보시다니

趙明基

吊辭

님은 永生 하건만
우리 不德으로 가시다니

孫喜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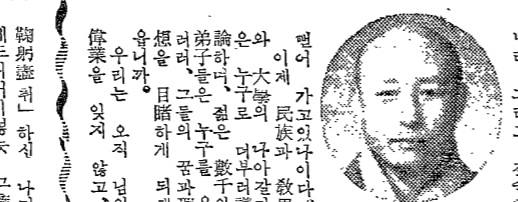
人間梵山은 眞한다

錢鎮漢



趙明基의 哀悼辭

趙明基의 哀悼辭



孫喜馳의 吊辭

孫喜馳의 吊辭

메아리치는梵山의 語錄

東大는 내 晩年의 「라스트 폴」

自由意志에 따라 歷史를 創造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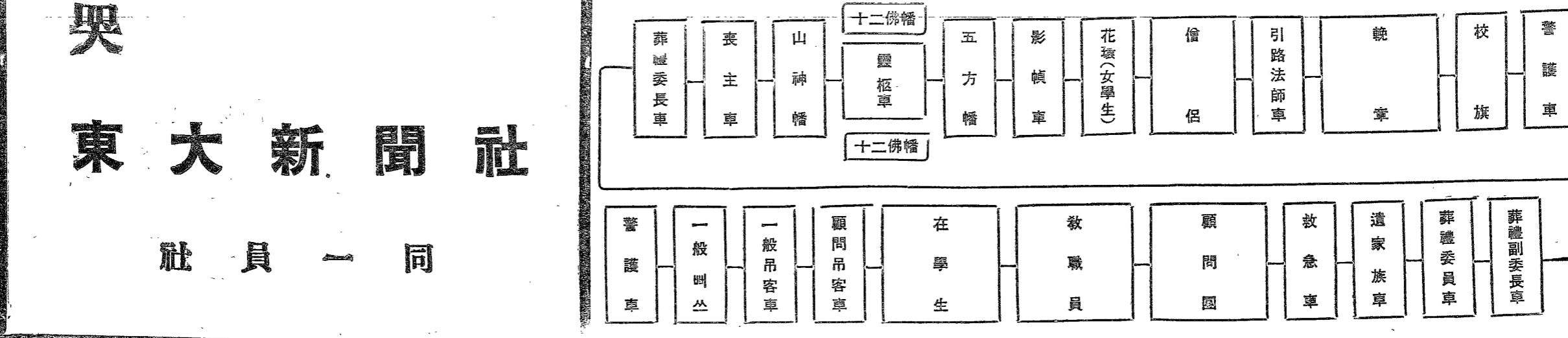
꿈은 人生航路의 指針이다

東大는 내 晩年의 「라스트 폴」

自由意志에 따라 歷史를 創造하라

꿈은 人生航路의 指針이다

故 梵山金法麟博士學校葬行列圖表



哭 東大新聞社

社員一同